



Dear Sisters! Greetings from Sister Mary Victor Powers.

I was born of an Irish Father, Joseph, and a German Mother, Kathryn, in Hazelwood, a small part of Pittsburgh, Pennsylvania. My Dad worked in the steel mill which was practically in our back yard. My sister, Geri, was born two years after me.

We attended Saint Stephen School staffed by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Mother Seton has always been a very big part of my life from grade school, to making vocation retreats at Seton Hill, to Elizabeth Seton High School. It was at Elizabeth Seton High School that my wish came true, I could enter the community of the Sisters of Charity.

My first assignments were 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and eventually a principal in four parish schools.

My 46 years as a school principal were very fulfilling and at times challenging.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was facing the first Catholic School Teacher strike. The challenge being to bring about reconciliation between the teachers who walked the picket line and those who chose not to walk.

My most fulfilling time was doing staff development and establishing Word of God School as one of total inclusion. St. Anthony School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d Western Pa. School for the Deaf were part of the program. All children benefitted from the program.



My most fulfilling time was doing staff development and establishing Word of God School as one of total inclusion. St. Anthony School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d Western Pa. School for the Deaf were part of the program. All children benefitted from the program.

All the changes in my life came about as assignments. My final move was quite different. My sister, my best friend, had to move to Elizabeth Seton Memory Care facility. I planned to stay temporarily at Caritas Christi but was invited to stay. I decided to stay and now I live with women who have followed Mother Seton all their lives. My sixty-five years as a Sister of Charity have been years of joys and blessings.





사랑하는 수녀님들! 안녕하세요. 메리 빅터 파워즈 Mary Victor Powers 수녀입니다.

저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작은 마을인 헤이즐우드 Hazelwood 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요셉, Joseph)는 아일랜드인이시고 어머니(캐스린, Kathryn)는 독일인이지요. 아버지는 저희 집 뒷마당이나 마찬가지로인 제철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제 여동생 제리 Geri 는 저보다 2 살 아래이고요.

저희 자매는 사랑의 씨튼 수녀회 수녀님들이 가르치셨던 성 스테파노 Saint Stephen



학교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 Elizabeth Seton High School, 그리고 씨튼 힐에서의 성소 피정에 이르기까지 마더 씨튼은 항상 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 시절 저의 소망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저는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할 수 있었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첫 사도직을 시작하여 본당 학교 네 곳에서 교장직을 맡았습니다.

교장으로 지낸 46 년은 보람된 시간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도전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가톨릭 학교 교사들의 첫 파업이었어요. 그 파업에 참여했던 교사들과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 사이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일이 참 어려웠지요.

그리고, 가장 보람된 시간은 통합 교육 학교로 하느님의 말씀 학교 Word of God school 를 설립하고, 교직원 개발 교육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성 안토니오 St. Anthony 특수 학교와 서부 펜실베이니아 청각

장애아동 특수 학교 Western Pa. School for the Deaf 가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었고,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답니다.



제 삶에 생긴 변화는 모두 사도직 파견을 통해서였지요. 하지만 마지막 변화는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인 제 여동생이 엘리사벳 씨튼 메모리 케어 Elizabeth Seton Memory Care 센터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임시로 까리타스 크리스티로 옮길 계획을 했지요. 그런데

까리타스에 계속 머물라는 제안을 받았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지금은 온 생애를 마더 씨튼을 따르며 살아온 수녀님들과 함께 까리타스 크리스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녀로서 살아온 저의 65 년 동안의 삶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